

# “광고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돼야”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정치)는 1월 2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초청 간접광고, 규제품목 완화 등 정부의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게임, 앱, 핀테크 서비스가 방송광고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듯이, 기업들도 방송광고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방송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기업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리우 올림픽이 개최 되는 등 방송 이벤트가 많은 만큼 방송광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시장 활성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 방송광고 심의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등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건의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 A A**

임영화 기자 05bokee@naver.com